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 영미문화의 이해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미 연

# 영미 문화의 이해와 의사통과의 관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and Communication

-Focusing on Textbooks of The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미 연

# 영미 문화의 이해와 의사통과의 관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엄 규 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미 연

이미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목차	i
ABSTRACT	ii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논문의 구성	2
II.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3
2.1 문화의 개념	3
2.2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	4
2.3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5
2.4 문화교육의 중요성	6
III.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의 차이	7
3.1 가치체계의 차이	7
3.2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	9
3.3 표현의 차이	13
IV. 중학교 교과서 분석	19
4.1 분석 방법	19
4.2 분석 결과	21
V. 효율적인 문화 지도 방안	22
5.1 문화 지도 방법	23
5.2 의사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지도 방법	26
5.3 문화지도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	31
VI. 결론 및 제언	33
참고 문헌	35
<부록>	38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and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Lee, Mi-yeon

Advisor : Prof. Yom, Gyu-eul, Ph.D.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standing of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and communication. It also describes the importance of culture education in learning other language and suggests efficient ways which are proper for our classroom situation. In addition, this paper finds out the differences of culture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America. It shows that we should put emphasis on culture education for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This paper shows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English classroom. The textbook in the 7th curriculum which is now used in the middle school is analyzed. But It reveals lack of culture content and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culture of target language. It suggests efficient ways to improve cultural competence through English classroom, movie, and drama. It should be authentic contexts and student-centered with 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eaching the language does not only mean teaching linguistic knowledge, but also develop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English-speaking countries. Also, English teacher should make efforts to keep in mind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they have to consider various cultural conditions for students. Teacher have to make the class to be effective and try to create interesting and exciting atmosphere to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lass. These things could develop students' competence of the culture of target language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as well.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급속한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치, 비즈니스,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외국인과의 실제 대화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화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뉘어 진다. 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은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억양, 강세, 담화구조와 같은 것을 포함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얼굴 표정, 몸짓, 자세, 시선과 같은 것에서 표현되는 의미를 말한다. 대화를 할 때 상황이나 상대, 그리고 주제에 따라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목표언어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목표어의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 양식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등한시 되어온 문화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의 정의에 대해 규명하고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논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지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란 무엇이고 과연 문화와 언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지도가 왜 영어교육에서 필요한지를 밝혀, 교실 안에서의 구체적인 문화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2. 논문의 구성

한국어와 영어는 문화적 배경을 전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 문화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사고 유형 및 가치관의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두 문화 사이의 이러한 정신적 측면을 기반을 둔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완전한 의미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사고유형이 다르면 다를수록 두 문화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실상황에서 문화 지도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SL 상황일 경우에는 직접 목표언어의 문화를 접하게 되지만 EFL 상황에서는 교실수업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든 문화를 제시해 주어야만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취지아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첫째,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밝힌다. 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화와 언어,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화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둘째, 이러한 문화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다. 즉,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의 차이점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크게 세 부분(가치체계의 차이,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 표현의 차이)으로 나누어 각각의 차이점들을 분석한다.

셋째, 현재 교실수업 안에서는 어떠한 문화내용이 지도되고 있는지를 중학교 1학년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지도 방법을 모색해보고 그에 맞는 문화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 2.1. 문화의 개념

문화란 전 인류를 거쳐 만들어온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며 학자마다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한 의견과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문화를 정확히 한마디로 정의 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출현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적 의미의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물심양면에 걸치는 생활 형성의 양식과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신기철: 1884)

Rivers(1968)는 문화란 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삶의 훈련된 결과라고 했다. 어린아이가 한 사회적 단체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를 무의식적으로 훈련하게 되며, 문화란 이러한 훈련 화된 다양한 생활양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mber(1993: 112)는 문화란 한 집단 안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며, 한 사람만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습관이지 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rown(2000: 176)은 문화란 생활의 방식이며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주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즉, 한 시대와 집단을 특징짓는 이상, 관습, 기술, 예술, 도구들을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사회적으로 습득되거나 학습되어지는 지식이다.

둘째, 문화란 여러 세대를 거쳐 변형되며 공유 되어 지는 것이다.

셋째,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을 나타낸다.

넷째,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문화란 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구성원들의 모든 생활 양상이며 이는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또, 후천적으로 습득되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변해가는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2.2.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그 언어 속에는 그 나라고유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대개 “어디 가십니까?”라고 표현한다면 영어는 “Where are you going?”라고 표현한다. 외연적으로는 같은 의미 이지만 이 표현들이 내포하는 문화적 의미는 현저히 다르다. 한국인의 경우, 대개 상대방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관심과 흥미가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우정적 인사이므로, 기대하는 대답도 ”아무데도 안갑니다“(Nowhere)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특정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대답 ”To the library to borrow a book.“라고 반응한다. 이에 대한 상황으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비신사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현욱, 1991).

인류학자인 Tylor는 문화가 “하나의 복잡한 종합체로서,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을 비롯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획득한 개인의 모든 가능한 관습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밀접함은 물론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나상배, 2003).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으로써 이 양자는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어서 양자를 분리시키면 언어나 문화 중 어느 하나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어의 습득은 곧 문화의 습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해당언어의 문법적인 규칙과 지식은 물론, 언어사용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지식이 더욱 더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연숙, 2004). 이러한 문화체계의 자의성의 특성 때문에 객관적 논리적으로 어떤 문화가 반드시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외국어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 2.3.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언어란 그것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문화의 반영이요, 사회적 약속의 산물로서, 사용자들의 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Canale and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①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어휘에 대한 지식과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음운론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②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담화속의 문장들을 연결하여 일련의 발화로 부터 유의적인 전체 의미를 형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문법적 능력이 문장 단위의 문법을 다루는 것이라면, 담화적 능력은 문장 사이의 상호 관계와 연관된 것이다.

③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상황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기능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상황에서만 특정한 발화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④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이란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의 적절한 효율을 위해서 사회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의 개념에 포함되어 우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들이 속한 문화에 기초한 일정한 배경지식(schema)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 때문에 문화 간에 오해나 문화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모든 유형의 의사소통에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 언어의 의사소통체계는 또 다른 언어의 의사소통 체계와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언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상의 차이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국어 교습에 있어서 목표문화의 적극적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이홍수, 1999).

이와 같이 문화와 의사소통사이에는 문화와 언어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이 모두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목표언어 습득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 2.4. 문화교육의 중요성

Chastain(1976:383)은 성공적인 목표언어 사용이라 함은 언어의 기술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이해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언어적인 기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언어의 문화를 모른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 배경지식을 배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 하며 문화교육으로 인해 언어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학습자의 모국어 문화가 학습방식의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한 연구와 선호되는 교실수업 절차에 대하여 많은 점을 시사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대답하기, 개인적인 에세이 쓰기,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대화 잡지 기록하기 등과 같은 수업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개인적 감정은 매우 사적이며, 교실에서와 같은 공식장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박경자와 장복명, 2002).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1997)에서도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

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 관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언어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임을 생각할 때 문화를 독립된 항목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문화교육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된 언어활동을 위한 문화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둘째,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양식.

셋째,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교육 내용은 영어권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양식에 관련된 문화에 대한 것과 동시에, 영어권과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에도 중요성을 두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 Ⅲ.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의 차이

#### 3.1. 가치 체계의 차이

한국과 영어문화권 사이의 의식체계는 서로 한 국가를 형성하는 세월만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사고방식 구조를 알아야 만이 서로 다른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루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목적은 목표어의 언어기능 못지않게 그 나라의 정신

을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란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화이해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법지식이나 어휘능력 같은 언어적인 장벽(linguistic barriers)은 어느 정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두 언어간에 깔려있는 사고유형이나 문화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적(verbal) 혹은 비언어적(nonverbal)인 면에서 겪는 문화충격이나 오해의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신성철(1999)은 문화의 사고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즉, ①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②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③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④ 결정 과정의 차이, ⑤ 상보적 관계와 대칭적 관계로 분류하였다.

사고의 유형을 설명해보면 한국인들은 종합적 사고를 한다. 한국인들은 고유의 성질에서 혹은 총체에서 실체를 파악하려는 점에서 종합적이다. 또한 사물을 저절로 존재하는 듯이 보고 있으며, 사물을 여러 범주로 분석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 속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 한 마디로 “개인(individual)”보다는 “전체(whole)”를 중시한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 사물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사물을 여러 요소로 분석하고 분해한다. 또한 분류화, 범주화에 강하고, 선과 악, 신과 악마, 개인과 전체와 같은 절대적인 이분법(dichotomy)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서 사고유형의 문화적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은 자기를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사회에서 특별한 관계가 일반적 원칙보다 우세하다. 즉, 기준이 절대적이라기 보단 상대적이다. 하지만 미국인은 자립과 평등의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사회에서 사고유형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며,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의 개념은 명백하고 불변적이다.

현실주의(realism)와 이상주의(idealism) 차원에서 보면, 한국인은 주관성을 내성적(introspective)으로 생각하고, 실제 사건의 정확한 세목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면, 미국인은 객관성(objectivity), 전문성(specificity), 정확성(precision)을 중시한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한국인의 경우 의견의 차이는 잘 해결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결정은 논쟁이나 투표소로서가 아니라 완곡한 방법으로 감정의 일치, 합의를 더 미묘하게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단 간의 조화를 위해 가능하면 투표에 의한 결정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국인의 경우 관련된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문제를 직접 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당면과제 지향적이다.

한국인은 상보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를 중시한 반면 미국인은 대칭적 관계(symmetrical relationship)를 중시한다. 한국에서는 연령, 성, 역할, 신분과 같은 유사성을 중시하지만 미국인들은 나와 너의 대칭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신성철(1999)이 분류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고유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인	미국인
종합적 사고	분석적 사고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완곡적 방법	직접적 방법
상보적 관계	대칭적 관계

### 3.2.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생활양식면의 차이를 알아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유범(2004)의 문화지도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 그리고 표현의 차이를 소개한다(3.2.1~3.3.1).



### 3.2.1. 식생활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국과 고기와 다양한 채소류를 재료로 하는 반찬을 먹는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식사로 토스트 또는 베이글(bagel), 우유 또는 주스, 베이컨과 계란 후라이 또는 스크램블(scrambled egg)를 먹거나, 우유와 시리얼(cereal)만 먹기도 한다.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은 주 요리를 만들어 푸짐하게 먹는 경향이 있다. 영어문화권에서는 주로 오븐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물을 넣고 끓이거나 삶는 방식을 취한다.

식당에서는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는데 먼저 입구에서 종업원의 지시를 받아 좌석으로 안내받는다. Fast food restaurant에서는 음식을 내주는 종업원이 To sit or to go?(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라는 표현을 항상 쓰는 경향이 있다. 종업원을 을 부르고 싶을 때는 종업원이 올 때 까지 기다리거나 눈이 마주 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소리를 내어 부르면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음식을 먹은 후 식탁에 계산서와 함께 팁을 놓아두는데 보통 음식 값의 10%를 주는 것이 관례이다.

### 3.2.2. 학교생활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교사를 부를 때 쓰는 ‘선생님’에 해당되는 영어호칭은 없다. 이 점을 모르고 교사에게 ‘Teacher’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Mr, Ms. 다음에 교사의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면 교사는 학생들을 교장에게 보낸다. 대개 detention(하루정도 방과 후에 반성하는 시간 2-3시간정도를 갖게 하는 일종의 벌)을 주는데, 규칙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detention의 횟수가 3번 이상이 될 경우에는 suspension(정학)을 주기도 한다. suspension으로도 행동이 나아지지 않거나 잘못이 매우 심한 경우 퇴학(expulsion)을 당하며, 대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영어권사회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일류대학은 공부 성적만 중시 여기는 것보다는 그 밖의 사회경험, 리더쉽, 봉사활동 경험 등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고려한다. 또 회사에 입사 한다 해도 출신 대학보다는 실력과 능력에 의해 대우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처럼 방과 후 학원에서 늦게 까지 공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3.2.3. 파티문화

영어권 국가에서는 파티가 일상 생활화 되어 있다. 파티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파티
- 초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참석해도 좋은 파티
- 초대장을 보내서 알리는 방식
- 초대장 없이 구두로 또는 전화로 통해서 알리는 파티
- 식사 없이 술 또는 음료수와 가벼운 음식을 먹는 파티
- 식사도 함께 제공되는 파티

장소 면에서 집에서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나 식당, 야외에서 하는 파티가 있다. 미국에서는 흔히 개인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파티를 연다. 대부분 방, 거실, 부엌 등을 공개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한다. 음식은 부엌 또는 거실에 늘어놓고 일회용 접시와 컵, 포크 등을 놓아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며 정원이 있다면 날씨가 좋을 때 바비큐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한다. 집에서 하는 파티라면 초대받은 손님은 와인이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작은 간식거리나 음료도 준비해 가기도 한다. 파티에 참석할 때는 분위기에 적절한 복장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친한 사이의 파티라면 편안 복장을 해도 상관없지만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정장을 입고 예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할로윈 파티처럼 가장을 하거나 특정 옷차림을 하고 모여야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을 차려 입어야 한다.

### 3.2.4. 상거래

미국의 경우 상가지역은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으며 거주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가야한다. 이렇게 shopping mall이라 불리는 큰 상점은 대형 슈퍼마켓, 일용품점, 백화점, 극장, 음식점 등이 함께 있어 쇼핑 외에도 주말에 자녀들이나 부모 혹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여가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심 지역에도 작은 식품점이나 일상용품점들이 있지만 대형 상점 보다 물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형 상점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의 garage sale이나,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사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흥정을 통해 값을 정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Montana나 Oregon 주처럼 판매세가 없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산할 때 세금을 합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영수증과 함께 기한 내에 가야한다. 대형 매장의 경우 customer service가 따로 있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 상점에서는 환불기간이 지난 경우 교환할 수 있는 맘에 드는 물건이 없다면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store credit을 주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 3.2.5. 예약 문화

영어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자 할 때
- 공적인 업무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 차를 고치기 위해 정비소에 가려고 할 때
-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갈 때
- 고급 식당에 갈 때

예약은 대개 전화로 하며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예약을 하지 않고 간 경우라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 3.3. 표현의 차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양식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뉠 수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을 도구로 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음과 강세 및 억양, 담화구조, 말투, 화행, 대화전개 방식 등을 사용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시선, 표정, 손짓, 몸짓, 자세, 개인적 공간, 행동 등을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 서로의 입장, 대화시의 상황, 주제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3.3.1. 언어적 의사소통

##### (1) 화제

영어 문화권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보통 공통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다. 여성들의 경우, 날씨 외에 헤어스타일이나 옷, TV 드라마, 취미생활 등을 화제로 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한편 남성들의 경우 스포츠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향이 많다.

사적인 질문이나 사생활에 관련된 화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면이나 잘 알지 못하더라도 서로 호감이 있는 경우 대화를 조금 나눴거나 친해지게 되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경향이나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화제 선택 시 정치나 논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소재이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인종관련 화제 역시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2) 대화내용

대화 내용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대화내용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나이, 또는 체중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체중이 느신 것 같은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와 같은 표현을 쓸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 상대방이 대답할 때도 웃으면서 가볍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립적 능력을 가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해준다. 성인이 된 여성에게 어떠한 일에 관해 부모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과 같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3) 대화 전개 방식

처음 대화 단계에서는 초면일 경우 서로 공통된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름을 물어보거나 “I’m glad to meet you.”와 같은 반갑다는 표현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ice breaking 단계라고 한다. 이렇게 대화과정을 거쳐 서로의 용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대화를 마무리 하고자 할 때는 보통 Okay와 같은 담화 표시어를 사용해서 서로 할 말이 더 이상 없음을 확하고 어디로 가야한다거나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하고 대화를 종료한다. 짧은 대화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So we will meet in front of the library at 10 tomorrow morning.

B: Right.

A: Okay

B: Okay

A: Well, I have to go to class. I’ll see you tomorrow, then.

B: Okay, bye!

#### (4) 담화 표시어, 강세, 억양

담화 표시어(discourse marker)는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끝 때 사용되는 표현을 말한다. 담화 표시어는 well, uh, and, so, but, like, y'know 등이 있다.

상대방에 어떤 초대나 호의를 베풀 때 'I can't'라고 바로 말하기 보다는 well 이나 uh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을 예상하게 하여 서운함을 줄 일 수 있다. 이렇게 담화 표시어들이 대화를 진행하는데 요긴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별해 놓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강세에 있어서도 문장 내에서 어디에 강세를 두는가에 따라 전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I said I wanted an orange."라고 말을 할 때 orange를 강하게 발음하면 오렌지를 원한다는 뜻이고, I를 강조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억양의 변화에 따른 의미차이를 살펴보면 "I'm sorry."를 말할 때 끝부분의 억양이 올라가면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 다시 말해달라는 뜻이 되고, 내려가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뜻하게 된다. 이런 억양 강세 변화에 따른 의미를 원어민의 직접대화나 실제와 같은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정확한 의사 전달을 알 수 있다.

#### (5) 언어적 표현의 차이

언어란 그것이 속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태도, 습관 등과 함께 학습되고, 이런 것들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만의 문화와 언어 간의 밀접한 연관 때문에 두 언어의 낱말이나 표현 간에는 완전한 의미가 일치하는 1:1의 상당어가 좀처럼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약국"을 미국영어로 "drugstore"로 번역해야 하지만, 이 두 낱말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약만 취급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약품 외에 화장품, 문방구, 담배, 신문, 잡지, 과자, 타자기, 양탄자 등 다양한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간단한 식사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최현욱, 1991).

이러한 문화체계의 자의성의 특성 때문에 객관적 논리적으로 어떤 문화가 반드시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외국어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잘못된 표현들이다. 더 많은 실례는 신성철(199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안은 미국식 표현이다.

- How do you think about Korea? (What do you think of Korea?)
- Where are you going? ( Where are you heading for?)
- I saw a loss (I suffered from a loss)
- I lost my road ( I lost my way)
- Rain is coming now (Rain is falling now)
- How have you come here? (What has brought you here?)
- How much is your weight?(How much do you weigh?)

### 3.3.2. 비언어적 의사소통

어느 문화에서나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신체적인 동작이나 몸짓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문화가 다양한 만큼 그 차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Klop(1982)는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행동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 언어적 표현의 반복(Repeating)
- 언어적 표현의 대체(Substitution)
- 언어의 부족한 부분 보완(Complement)
- 말의 효과를 위한 언어 일부의 강조(Accenting)
- 상대방이 전달하는 말을 규제(Regulating), 즉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말을 계속 이어지게 하거나 화제를 전환하거나 말을 중단시킨다.
- 언어적 표현과 상반된 의미전달(Contradiction), 즉 화난 음성으로 말하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등을 어루만지는 행위 등이다.

Brown(2000)은 비언어적 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의 중요성 강조하여 의사소통 능력은 nonverbal competence(목표어의 모든 비언어적 의미에 관한 지식)와 nonverbal signals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언어적 매체로는 신체언어, 몸짓(gesture), 촉수(touching),

그리고 향료 등이 있다고 하였다. 박의재와 정양수(2004)는 다음과 같이 비언어적 행위를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있다.

(1) 몸짓 및 신체언어(gesture and body language)

어느 문화와 언어에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몸짓과 신체 언어가 있다. 팔짱을 끼고, 발을 꼬고, 일어서고, 앉고, 눈과 입을 움직이는 등의 이러한 몸짓과 신체언어는 어느 문화나 언어권에도 통용되는 보편성이 있긴 하지만 사회마다 인습적으로 통용되는 동작이나 몸짓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는 한 문화권에서 알맞은 몸짓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선접촉(eye contact)

의사소통 중에 이루어지는 시선 접촉 또한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를 지라도 시선 접촉은 대화를 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가나 피하는 행위는 자신감이 없거나 대화의 지루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반면 동양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시선 접촉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예의가 없이 무례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3) 근접학(proxemics)

두 사람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든지 아니면 너무 멀다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Hall(1966)은 개인적 담화에서 용인되는 거리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약 50-60cm정도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만 남미 인들은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미 인들이 대화를 위해 가깝게 다가서면 미국인들은 침범당한 다는 불쾌감을 받아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또다시 남미 인들에게 불쾌감을 유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에 따라 사람들과의 공간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간 의식을 파악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 가공품(artifacts)

옷이나 기타 장신구도 메시지의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며 보석이나 장신구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스타일을 표현해 준다. 특히 의복의 경우 특정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입는 유니폼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의복은 그 사람의 개성이나 인격,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을 표현해 주며 연령까지도 짐작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영어권 국가에서는 피어싱(piercing) 또는 문신이 젊은 층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5) 감각양상(kinesthetic dimensions)

감각양상이란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지는가에 관한 비언어적 소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성끼리 손을 잡고 가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친밀함을 나타내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동성연애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가벼운 키스나 포옹 같은 인사적인 행위는 서구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동양에서는 이를 이상 하게 여길 수 있다.

#### (6) 후각양상(olfactory dimensions)

서구사회의 사람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마늘이나 양파냄새가 난다고 하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로부터 노린내가 난다고 한다. 인간 특유의 이러한 냄새는 그 나라의 음식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수나 크림 등으로 서로 주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매체는 상당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고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패턴, 관습, 생활방식 등은 언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고 문화특유의 세계관이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화는 언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매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교실수업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연역적인 수업형태로만의 진행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몸짓, 얼굴표정, 신체 접촉 과 같은 비언어를 가르쳐 줌으로서 외국인과의 접촉 시 보다 적절한 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V. 중학교 교과서 분석

### 4.1.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가운데서 5종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문화 내용의 반영도를 비교 분석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중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편의상 알파벳 A, B, C, D, E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출판사	저자	학년	표시
(주) 교학사	배두본 외 5인	1	A
(주) 금성출판사	장경렬 외 3인	1	B
(주) 두산	김성곤 외 4인	1	C
(주) 두산	장영희 외 5인	1	D
(주) 천재교육	이병민 외 4인	1	E

한국교육개발원(1997)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내용의 소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학생들의 흥미, 필요, 동기,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한다.
- (2) 주제와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한다.
- (3)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한다.
- (4) 상호 작용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한다.
- (5) 심화 학습과 발전 학습에 적합한 소재를 설정한다.

다음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한 소재들이다.

- 개인생활에 관한 것(개인생활)
-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것(가정생활)
-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관한 것(학교생활)
-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등에 관한 것(사회생활)
- 생활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것(생활습관)
-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것(여가선용)
- 동물, 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것(자연현상)
-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외국문화)
- 우리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한국문화)
-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가치관형성)
- 환경보전, 봉사, 협동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건전한 사고)
-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해양, 우주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교양증진)
-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예술·문학)
-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복지증진)
- 남녀평등과 민주시민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민주의식)
-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것(사고력배양)
- 국제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국제관계 이해)

## 4.2. 분석 결과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를 기본 바탕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화적으로 다소 겹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외국문화와 한국문화가 동시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외국문화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앞에 제시된 소재를 기준으로 교과서별 문화적 내용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소재	교과서					빈도	비율 (%)
	A	B	C	D	E		
개인생활					7과	1	1.67
가정생활	4과			3과		2	3.33
학교생활	1과	1과	3과	1과	1과	5	8.33
사회생활	2과	2,3과	1,4,12과	2과		7	11.67
생활습관	3과				4과	2	3.33
여가선용	6과	4,6,9,11과	2,8과	11과	3,11과	10	1.67
외국문화	10,9과	8과	5,6과	5,9과	8,10과	9	15
한국문화	8과	5과		8과	2과	4	6.67
가치관 형성		10과		10,12과	5과	4	6.67
건전한 사고	12과		10,11과	4,7과	12과	6	10
교양증진	11과	12과	7,9과	6과	9과	6	10
사고력배양	5,7과	7과			6과	4	6.67

앞의 분석한 표에 따르면 사회생활부분과 교양증진 및 건전한 사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화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교과서 분석결과 더 넓은 범위의 문화적 자료가 제시 되어야 하고 언어의 형태적인 요소보다는 문화의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편찬된 교과서가 필요 하며,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문화지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분명한 한계와 범위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란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가르쳐 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보여 주고 익히도록 다양한 교구와,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자료가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교과서의 부록이나 문화적 내용이 담긴 작은 책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그 문화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교사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지식을 갖추도록 항상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야할 것이다.

## V. 효율적인 문화 지도 방안

문화지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학생들이 실제 문화의 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의 전달보다는 체계적인 문화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수 학습 안을 설계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1. 문화 지도 방법

이도수(2006)는 현재까지 제시된 문화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5.1.1 문화설명(Culture Aside)

언어학습 도중에 어떤 문화내용이 나오면 잠시 학습자의 관심을 언어에서 문화 쪽으로 돌려 문화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을 “culture aside”라 한다. 예를 들면, 독해 자료에서 Valentine’s Day가 나왔을 경우 교사는 Valentine’s Day의 정의를 내리고 그 유래와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쉽게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지도는 교사의 평소에 갖고 있는 문화상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없고 수업이 교사중심으로 흐르기 쉽다. 교사는 수업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Have you ever heard the word Valentine's Day?
- When is the day?
- who is Valentine?
- What is done on the day?
- Is it American holiday?
- Do we have this kind of day in Korea?

### 5.1.2 문화묘사(Culture Capsule)

앞에서 소개한 Culture aside처럼 수업 도중에 나오는 문화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주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미리 문화에 대해 정리를 해두어 필요하면 실물까지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 문화 간의 요소를 비교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하여 외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외국문화 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5.1.3 문화어휘 연상(Association of Culture Vocabulary)

학생들의 선협지식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American 하면 생각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brainstorming을 한 후에 표로 만들어 아이들의 선협지식을 분석하면서 문화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 5.1.4 문화 짝 맞추기(Culture Match)

학생들에게 어떤 문화항목을 숙지시키기 위해 다른 문화권에서 그와 대응되는 것을 찾도록 하는 학습활동이다.

	추석(한국)	추수감사절(미국)
취지	To thank ancestors for harvest	To thank God for harvest
시간		
장소		
행사		
음식		

### 5.1.5 문화적응(Culture Assimilator)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오해(miscommunication)를 이해시켜 목표 문화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수업 전 교사의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의 장애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들려주거나 보게 하여 의사소통의 장애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상황이 주어지고 학생은 이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사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사실을 가려주어 문화 간의 차이점을 이해시킨다. 다음과 같이 영어로 질문하고 네 개의 답지 중에서 선택하여 대답하게 한다.

<실례1> You are invited to an American friend's house and you are introduced to the friend's parents. What would you do?

- (a) Say nothing and bow.
- (b) Say, "Hi!" and bow.
- (c) Say nothing, and shake hands.
- (d) Say, "Nice to meet you", and shake hands.

<실례2> You feel like blowing your nose at table in the American friend's dinner party. What would you do?

- (a) Say nothing, and go to the toilet to blow your nose.
- (b) Say, "Excuse me'" and go to the toilet to blow your nise.
- (c) Say, "Excuse me," and blow your nise.
- (d) Try to control the needs and quicken the meal.

#### 5.1.6 청취 후 행동(Audio-Motor Unit)

특정 문화적 상황을 교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학생은 이를 반복적으로 관찰한 후 직접 행동에 옮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레스토랑, 병원, 호텔 등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말과 행동들을 보여 줄 수 있다. 다음은 식당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실례들이다.

- I enter a restaurant.
- Find a waiter and say, "May I take a table, please?"
- Sit down at a table and pick up the menu to select the food to order.
- Call a waiter and order the food.
- Unfold a napkin and put it on my lap.
- The food comes and I enjoy the food.
- Finishing the meal, I put a tip on the table.
- I go to the cashier and pay the bill.



### 5.1.7 목표문화행동 역할 놀이(Cross-cultural Role-play)

학생들에게 문화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주어 실행해 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 특정 상황 속에서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문화충돌상황을 목표문화의 행동으로 바꾸어 역할놀이로 실연함으로써 문화행동의 차이를 강도 높게 몸에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화나 글의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정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도움아래 직접 대화문을 만들도록 하여 특정상황의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목표문화권의 제스처, 억양, 행동양식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특정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과 그에 따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2. 의사소통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지도 방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 목표언어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을 벗어나서 최대한 목표문화의 상황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준다면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목표문화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수 방법, 교실 환경,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이 목표 문화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끌 수가 있다.

단순한 목표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수업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특정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실제적인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수업은 교사중심보다는 학생중심으로 직접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상황에 몰입하

도록 환경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문화를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화 지도의 형태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의사소통적인 수업들을 제시해 보았다.

### 5.2.1 영어마을

경기도 영어마을의 출현에 따라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영어마을은 단기간 격리상태로 살아있는 영어학습의 체험공간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영어를 체험 하게하는 목표로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실상황과는 다르게 영어마을에서의 장점은 단기간 합숙을 함으로써 하루 일상생활의 문화와 직접 외국인과의 생활,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화체험 활동이란 실제 목표문화를 경험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영어마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소재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문화체험 소재

- On the Airplane
- At the restaurant
- At the Hotel
- Shopping
- At the hospital
- At the Bank
- Giving direction
- At the post office

#### 도구, 기법 및 활동

- Flashcards
- Lexical games
- Songs and music
- Discussions
- Picture stories
- TV, DVD and Video
- Guessing games
- Priorities
- Storytelling
- Computers and the Internet
- Comparing
- Putting in order

<영어마을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

	1일차	2일차	3일차
7:00~8:00	Getting up & Breakfast		
8:00~9:00	Listening & Exercise		
9:00~10:00	Showing the situation of hotel. (Role play, Group work)	Detecting differences	Cross-culture
10:00~12:00		Movie	Survey
12:00~1:00	Lunch time		
1:00~3:00	Outdoor activity		
3:00~5:00	Job experience	Cooking	
5:00~6:00	Reading the Magazine, Newspaper		
6:00~7:00	Dinner time		
7:00~9:00	Drama(Role play)	Song jumble	
9:00 10:00	Writing a diary		

### 5.2.2 영어교실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천홍(2006) 팀장은 영어마을의 순기능도 있지만 매우 비싼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로 997억원과 연간 운영비로 150억원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책방안으로 영어전용교실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여 최대한의 목표언어의 문화 환경을 끌어내 1회성의 단기간이라는 단점에서 벗어나 꾸준한 체험을 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다.

영어교실은 구룹 간의 토의가 가능한 책상과 DVD Player와 같은 기자재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영어 교실은 교사부터 영어를 사용해야하여 교실 안에서는 가능한 영어만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현 시대에 맞는 영어권 사람의 실제 생활모습을 담은 신문, 잡지와 같은 자료

들을 배치해 놓아야 한다. 학생들의 영어연극과 같은 수업에 필요한 소품이나 그룹 활동 시 만들어놓은 Wall Chart 전시 등의 보관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각 주제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소품들로 교실환경을 꾸밈으로써 학생중심의 수업을 진행해 문화 간의 차이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실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실현에 제한이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5.2.3. 영화

영화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실감나게 타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다.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용하여 학생들은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화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색다를 경험을 제공하게 해 준다. 영화의 특정부분을 학생들로 하여금 연습하고 암기하게 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으며 사건의 전개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추리하는 것은 영어학습의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생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골고루 습득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수업방식의 여러 형태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해 낼 수 있다.

영화를 통한 수업은 시청 전 활동(Pre-watching stage), 시청 중 활동(Main-watching stage), 시청 후 활동(Post-watching stage) 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있다. 먼저 영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게 하고 대본의 분석을 통해 언어형태적인 요소를 습득하게 한 후 배운 내용을 직접 연습하고 실현하게 함으로써 특정상황에 대한 문화적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다.

김영서(2003)는 다음과 같이 영화가 문화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일반 영화는 영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를 영

화 장면 전개를 통해 보여준다. 즉, 그들의 가치관, 관습, 식생활, 의복, 얼굴표정, 몸짓을 보여주고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의 보는 시각,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 인지와 관련된 학습은 전 문화영역에 걸친 토론 주제 또는 작문 등에 사용될 훌륭한 주제를 보여줄뿐더러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며 자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의식도 갖게 해준다.

#### 5.2.4. 드라마

영어교육에 있어서 드라마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 타인의 역할을 해본다는 것은 감정이입의 효과를 만들어 주어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 문화적인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익히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언어의 4가지 기능을 동시에 익힐 수 있어 언어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드라마를 통해 학습자의 감정이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학생수준에 맞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다른 문화적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다. 목표언의를 습득하는 것 이외에도 얼굴 표현, 제스처,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배움으로써 감정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문화 학습 자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는 집단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행사나 기타 공연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수업상황을 만들어주어 문화습득을 통한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에는 영어권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며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용득,1998).

### 5.3. 문화 지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목표언어를 배울 때 목표언어의 문화를 잘 익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깊숙이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따라 표현하게 되어 정확하게 구성된 문장 구조로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억양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의 잘못된 사용으로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지도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 교실수업을 돌아보면 입시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연역적 수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재 또한 언어의 기능 보다는 형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화지도의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교육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상호 비교, 대조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목표언어의 사용 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를 앎으로써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단순한 암기위주의 현실적인 교실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문화지도는 억지로 단편적인 내용의 전달에만 목적을 두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동시에 실제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문화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화와 지나친 일반화를 피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차이점을 보고 그것을 모든 타 문화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해당될 것이다.

두 번째, 영어권의 문화를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우리 문화를 열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학생의 자아정체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문화의 속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란 어떠한 것은 우월하고 어떠한 것은 열등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재에는 본국의 문화 내용도 충실히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교재의 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언어적인 요소만을 강조한 기존의 교과서 보다는 실물이나 목표 문화 현장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단계를 가진 교과서를 보충해 줄 작은 책자나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문화적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 또한 학습 자료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이면서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소재부터 체계적인 단계를 명확히 하여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문화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여 그에 따른 문화적 내용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문화 내용 및 소재 선정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학습내용의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수준을 벗어난 문화적 내용과 언어적 표현은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교사는 반드시 언어와 문화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고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 필요성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고 현 시대에 맞는 문화를 자주 접해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이를 장려하여 교사 연수와 교사모임을 통해 꾸준히 문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를 이끌어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언어와 사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체계와 생활양식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점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지도의 필요성을 인지해야하고 앞으로의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세계의 일꾼으로서 뺏어 나갈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목표언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에 흥미와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영어권과의 문화적 차이점을 가치체계,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 그리고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여 우리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 시 파악해야 할 문화적 사항을 살펴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입시위주의 읽기 중심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의 형태에 관한 지식만을 쌓게 하고 말 한 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 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지도를 위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중학교 1학년 교재 분석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 내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화자료는 그동안의 암기위주에 지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고 실제 문화 체험의 효과를 갖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내용과 시각적인 사진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



화이해를 위한 지침서나 부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교사는 어느 누구 보다도 언어학습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화적 차이점을 전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여 실제 대화상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실수업과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는 특별히 교사의 자연스러운 문화수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사의 해외연수 또는 영어교사끼리의 특정 모임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적 편견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특정상황에 맞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요소를 익히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연숙. (2005). *영어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천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 (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기천홍. (2006). <영어마을 최적 대안은 아니다>. 교육 인적자원부.
- 김영서. (2003). *영화와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김혜진. (2006).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문화지도 방안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상배. (2003). *언어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경자와 장복명. (2002). *영어 교재론*. 서울: 박영사.
- 박선영. (2006). *영화를 활용한 의사소통중심 영어수업방안*. 공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의재와 정양수. (2004). *새로운 영어교수법*. 서울: 한신문화사.
- 배남수. (2005). *영어교육에서 효율적인 문화교육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미국문화 중심으로*. 한국 외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용득. (1998). *영어 드라마 활용의 길*. 서울: 도서출판 인터비전.
- 신기철. (1984).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 출판사.
- 신성철 외. (1999). *현대영어교육*. 서울: 문경출판사.
- 유범. (2004). 교수-학습계발센터. <http://classroom.re.kr>.
- 윤여진. (2004).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언어적 측면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도수. (2006). *문화자료를 활용한 영어교육*. 서울: 도서출판 인터비전.
- 이상은. (2007).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활동*.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정. (2005).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수. (1999). *영어교수·학습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인천영어마을. <http://www.icev.go.kr>.
- 정동빈와 최현욱 (1991). *영어 교육론*. 서울: 한신 문화사.
- 정정섭. (1982). *외국어 교육의 기초와 실천*. 서울: 동원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 (1997).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인경. (2006).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지도의 중요성*.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황혜신. (2003).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문화적 내용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Brooks, N. (1964). *Language and Language: Theory and Practice*. N.Y: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Brown, H. D. (1987).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122-140, p247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Applied Linguistics, 1(1)*. 1-47.
- Chastain, Kenneth. (1976).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Hammerly, H.(1986).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W.A.:Second Language Publishers.
- Halliday, M. (1973). *Learning how to mean expl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 Klopf, D. W. and Park, M.S. (1982). *Cross-Cultural Communication: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Seoul: HanShin Publishing.
- Penny Ur.(2007). *Discussions that work*.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68 ).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movar, L. A.(1981)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lmon,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Sapir, E. (1963). *Culture, Language and personality.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apir, E. (1985). *Selected writing of Edward Sapir in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rivener, J. (2005). *Learning Teaching.* Macmillan Education.

Seelye, H. N. (1976).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Stern, H. H. (1992). *Issues and Option in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 E. B. (1973). *Primitive Culture.* Burgess Culture Publishing Company.

<교과서>

김성곤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두산.

배두본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교학사.

이병민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천재교육.

장경렬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금성출판사.

장영희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주)두산.

## 부록1: 영어교실 수업모형

<i>Culture Content</i>	In the Hotel
<i>Teaching Aids</i>	DVD Player, Blackboard, Role play Cards
<i>Aim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ents can speak useful expressions in the hotel.</li> <li>• Students understand the culture differences in the hotel.</li> </ul>

<i>Procedure</i>	<i>Set Up</i>	<i>Contents</i>
<i>Introduction</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king questions related to the hotel (Brainstorming)</li> <li>• Showing the video about the situation in the hotel or telling a short personal anecdote related to the subject.</li> <li>• Explaining useful expressions in the hotel)</li> <li>• Letting them know how to make a reservation</li> </ul>
<i>Main Activity</i>	Pair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ting students read their role play cards.</li> <li>• One of the students is the receptionist, the other is the guest.</li> <li>• Students have to make a dialogue about the situation and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li> </ul>
<i>Warm-up</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king questions to check how much students understand this lesson</li> <li>• Letting them know useful expressions and culture in the hotel</li> </ul>

## 부록2: 영화 수업모형

<i>Culture Content</i>	Table manner
<i>Teaching Aids</i>	DVD Player, Blackboard
<i>Aim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ents can use specific gesture in the appropriate situation.</li> <li>• Students can understand the manner in the restaurant</li> </ul>

<i>Procedure</i>	<i>Set Up</i>	<i>Contents</i>
<i>Introduction (Pre-watching stage)</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liciting the title of the movie and story by asking questions</li> <li>• Letting them predict the main idea</li> <li>• Give them useful expressions and vocabulary which are part of the movie</li> </ul>
<i>Main Activity (While-watching stage)</i>	Group work	<p>&lt;1st watching&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ting them find out specific information (making notes, filling in a chart)</li> </ul> <p>Watching the movie and helping students understand meaning between the gesture and specific situation</p> <p>&lt;2nd watching&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ing groups and let them follow the gesture and dialogue</li> <li>• Letting them practice the content and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li> </ul>
<i>Warm-up (Post-watching stage)</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 the gesture in the specific situation</li> <li>• Check the useful expressions in the movie</li> </ul>

### 부록3: 드라마 수업모형

<i>Culture Content</i>	The Last Leaf
<i>Teaching Aids</i>	Role cards, Scenario,
<i>Aim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ents can use key expressions in this drama</li> <li>• Students can understand the main idea and characters</li> </ul>

<i>Procedure</i>	<i>Set Up</i>	<i>Contents</i>
<i>Introduction</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ting students predict the story of drama</li> <li>• Give them new words and useful expressions</li> <li>• Explaining the gesture in the specific situation</li> <li>• Explaining the culture difference in the situation</li> </ul>
<i>Main Activity</i>	Group Work (Role-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d aloud the dialogue</li> <li>• Encouraging and leading students to take an active role.</li> <li>• Help students play by using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li> <li>• Encouraging students to express their emotional feelings in the situation</li> <li>• Giving them enough time to practice</li> </ul>
<i>Warm-up</i>	Who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laining the culture in the specific situation</li> <li>• Asking questions to check their knowledge of culture and check the useful expressions in the movie</li> </ul>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4815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미 연    한문: 李 美 演    영문: Lee Mi-yeon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삼호가든 102동 1405호				
연락처	018-604-2334		E-MAIL: sobrar@naver.com		
논문제목	한글: 영미 문화의 이해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영문: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and Communication -Focusing on Textbooks of The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2 월 일

저작자: 이 미 연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